

© 사진,故 정현우

한공연

한국공연예술센터
기획공연 선정작



3

rd TURN 세 번째 전환
TRUST DANCE THEATER
트리스트무용단



2010년 9월 30일(목)~10월 3일(일), 오후 8시

HANPAC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전석 20,000원

예매 **HANPAC** 한국공연예술센터 <http://www.hanpac.or.kr>, 콜센터 02-3668-0007

문의 **트러스트무용단** 02-879-0613 www.dance.ne.kr

안무 김형희 연출 김윤규

출연 이선영, 지현준, 구선진, 신소정, 신민, 이재은, 서진욱, 박진영, 김동희, 김윤규

작곡·연주·음악감독 Yohm Project(연리목, 음브레) 조명감독 강정희

의상디자인 이진희 무대감독 박선미 무대디자인 김경희 음향 이래경

사진 최병재, 김윤규 기획·홍보 송영림, 김민성 홍보물제작 연장통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지원부 부장 최형오 조명 이인연, 신호, 진용남, 이주환, 곽현주, 김재익

음향 김동수, 도명호, 이주호, 이한규, 김경남

무대 천원욱, 김예곤, 이동선, 오승준, 도성중, 김현지

공연기획부 부장 엄국천 기획공연 임수연 홍보 황금실 마케팅 강수정

연극대관 이선아 무용대관 김자은 인턴 김대훈, 김창훈, 김수연

하우스매니저 이상미, 민세정

주최 **HANPAC** 한국공연예술센터 **트러스트무용단**

주관 TM기획

HANPAC
한국공연예술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인문부 예술지원센터

한팩은 이 풍성한 계절을 맞아 다양한 무용기획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가을 舞대 라는 다편으로 6개의 개별 무용을 패키지티켓으로 엮어서 다양한 대체에 홍보하는 등 무용 관객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무조건 많은 티켓판매를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용 관객의 저변확대라는 장기적인 미션을 두고서, 한 달에 무용을 두 번 이상 관람하시는 유료 관객을 개발하고 확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과연 패키지 티켓이 팔릴까 생각했던 초반 우려와는 달리, 여러 장의 티켓이 판매되는 것을 보니 적잖은 기쁨과 희망이 생깁니다.

현 세대 무용그룹 중에서 큰 주목을 받는 **트러스트무용단**은 깊은 내적 성찰을 춤으로 흥미롭게 전달하는 단체입니다. **트러스트**의 무대는 꾸밈이 없기에 질감이 거칠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녔지만, 주제를 고민하고 전달하는 점에서는 고도의 밀도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자극적인 시각적 마찰력에 만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 호소력에 기꺼이 흡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시간이라는 줄의 어름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소극장 무대에서 보여줄 그 내밀한 표현들이 사뭇 기대됩니다. 대체로 다른 극장르에 비해서 무용은 짧은 공연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창의력이 뛰어난 무용을 본 후, 이렇게 좋은 공연인데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짐작컨대 이번 **트러스트무용단**의 <세 번째 전환>도 그런 안타까움을 남길 듯합니다.

한팩과 무용단체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무용의 깊은 맛을 알아가고 춤의 세계와 교감하게 된다면, 차츰 무용공연도 공연일수를 늘려야 하겠지요. 그럼으로써 장기공연 기록을 세우는 컨템포러리 무용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단체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트러스트무용단**의 <세 번째 전환> 무대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획 공연을 통하여 관객들이 오고 싶고 예술가들이 공연하고 싶어 하는 한국 공연예술의 '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최치림



아기가 산모의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 겪는 태아의 세 번의 전환점, 첫 번째 머리가 나오고 두 번째 어깨가 나온 후 마지막인 세 번째 방향을 틀지 못하면 태아의 생명도 다음 세상의 빛도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Third turn>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 성장해가는 우리들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세 번째 전환'이라 함은 나고 죽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매 시간 자신의 증인으로 무한히 그 존재를 이어가는 질긴 생명의 노동이자 몸짓으로 다시 만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한편 그저 보여주는 춤 이기보다 얼굴 마주하여 소통과 인식되는 춤이 되고자 했던 트러스트의 오랜 창작의 길 위에 이 작품은 음악과 소리 그리고 몸짓이 어우러지는 총체예술로서의 춤이라는 목표를 향한 트러스트의 세 번째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 이어 2010년 다시 한 번 아르코의 무대로 초대해 한국공연예술센터와 아르코 예술극장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창단 후 16년이라는 긴 여정을 늘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준 많은 분들께 그리고 힘든 훈련의 과정 함께 지켜준 단원과 출연진 그리고 스테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트러스트무용단 대표·안무 김형희



이 작품은 거할 공간을 찾아 유랑하는 사람이 아닌 시간이라는 줄의 어름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체들은 세상이 나고 사라지게 하는 유의미한 것으로 그로부터 끊임없이 생산되는 잉여가 세상이 되고 이를 소비하는 즐거움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위로합니다. 허상이면서 현실이 되는 오늘,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존재의 의미는 장자의 날갯짓마냥 무의미 해 보입니다.

<Third turn>은 우리들 스스로가 존재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춤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스스로 살아있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신성한 노동과 그 생산들은 이미 화석처럼 기억 저편 추억일까요? 여기 일할 줄 모르는 이들의 일, 놀 줄 모르는 이들의 놀이, 그리고 춤 못 추는 이들의 춤이 있습니다. 작품이 진행되는 중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낯설음과 만납니다. 무대에 채워지는 것은 스스로의 이끌림을 따라 끊임없는 소리와 몸부림뿐이며, 그것이 어떤 흐름과 관계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짓은 단지 대상에 대한 반응일 뿐 설명이 가능한 관계가 아닙니다. 기계적 소음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 그 속을 미친 듯 나뒹굴며 폭식하는 괴물의 시간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노동은 인류의 공영을 위한 오늘의 사랑행위만이 그 증거를 남길 것입니다.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현실조차 불러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거친 몸짓을 우리는 '세 번째 전환'을 향한 노동이라 할 것입니다.

트러스트무용단 예술감독·연출 김윤규



트러스트무용단의 「서드 턴(Third Turn · 3번째 전환)」은 지독한 현실에서 온 몸을 던져 희망을 찾는 춤이다

—김승현 (춤, 2009년 1월호)

트러스트무용단은 거친 에너지와 꾸밈없는 날것의 몸짓을 통해 어김없이 호소력 짙은 무대를 선사했다. 무용수들의 설득력 있는 저항과 반항은 관객에게 잊고 있던 내면의 소리를 찾아주었으며, 이로써 그들 자신에게는 또 한 번의 확실한 전환점이 된 셈이다.

—공연 칼럼니스트 이지연, 〈아트뷰〉 2009년 1월호

육체만의 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놀이와 일과 춤이 추어지지 못하는 불구의 세상의 구석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고 그것들과 ‘협력공생’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은 용감해진다. 작품 내내 보여지는 진지함, 격렬함, 개인의 개방성의 매력은 그런 각오 속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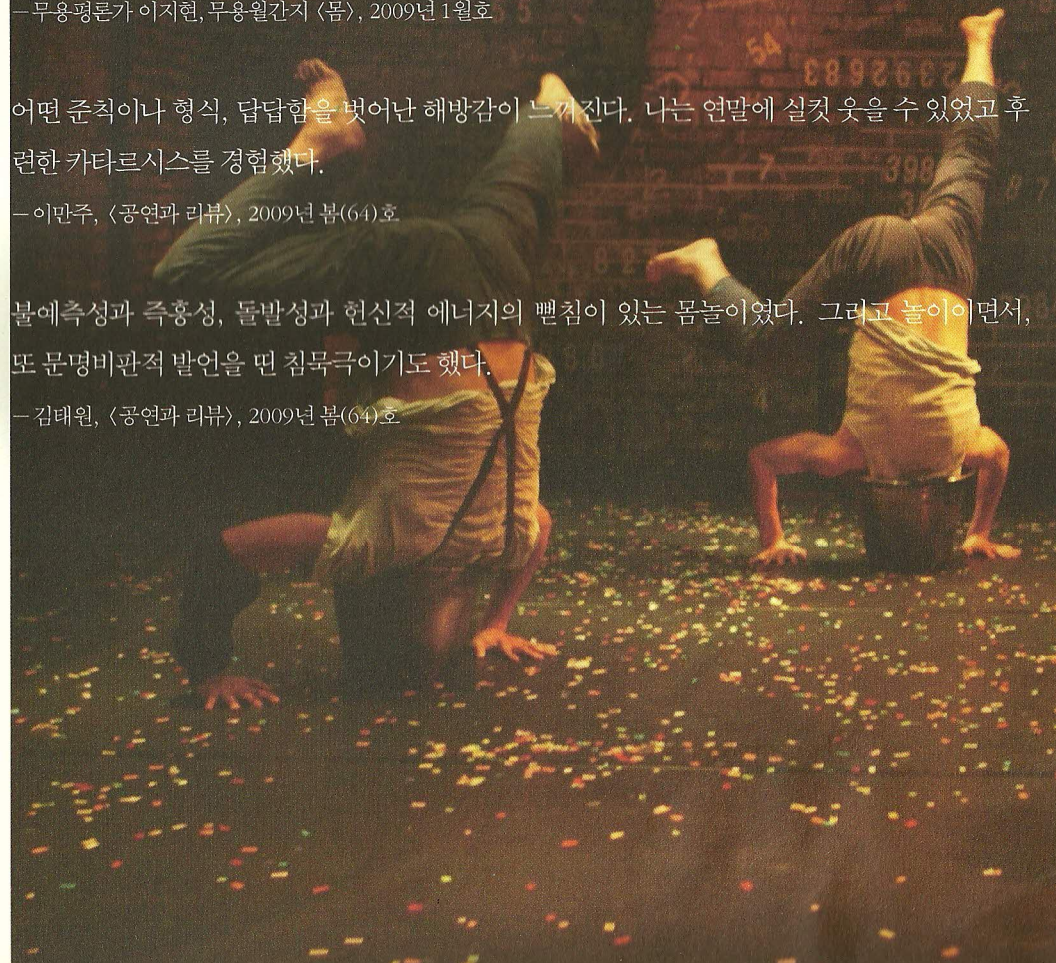
—무용평론가 이지현, 무용월간지 〈몸〉, 2009년 1월호

어떤 준칙이나 형식, 답답함을 벗어난 해방감이 느껴진다. 나는 언말에 실컷 웃을 수 있었고 후련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이판주, 〈공연과 리뷰〉, 2009년 봄(64)호

불에촉성과 즉흥성, 돌발성과 헌신적 에너지의 뻗침이 있는 몸놀이었다. 그리고 놀이이면서, 또 문명비판적 발언을 띤 침묵극이기도 했다.

—김태원, 〈공연과 리뷰〉, 2009년 봄(64)호



2008년 초연작, 11일간 11회 공연의 춤공연사상 첫 장기공연의 성공 | 2008년 PAF 선정 올해의 최우수작품상 수상 | 2010년 부산국제연극제 공식 초청작 | 2010년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국내 우수작 | 2010년 아르코 파트너 공동기획 프로그램 선정작

두 점을 지나 미끄러지는 한 줄을 이으니 삼각을 이루며 이를 ‘세 번째 전환’이라 이름 합니다. 스스로 두 번을 부정하고 그 두 번을 포함한 세 번째를 부정함으로 얻게 되는 강력한 긍정의 힘은 스스로의 노동을 증거 합니다. 건강한 노동성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일 못하는 자들의 일, 놀이 모르는 자들의 놀이가 시작됩니다. 몸과 몸 사이, 문과 문 사이를 팽팽히 줄을 이어 그 위를 맨발로 서고, 걷고, 뛰고, 아슬아슬, 어쩔어쩔 미끄러지듯 육체의 춤 드러냅니다. 서로가 스스로의 증인 되어 축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환〉은 트러스트의 두 번의 전환을 뚫고 진행되는 자기고백과도 같다. 트러스트의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인간과 세계의 신성을 향한 마지막 전환점을 말한다. 인간의 노동은 두 점을 이어 세 번째 전환점으로 완성되는 삼각의 결코 뒤틀림 없는 영원성을 의미하며 나아가 사람, 자연, 신의 완전한 만남과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산모의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 쥐는 태아의 세 번의 전환점, 첫 번째 머리가 나오고 두 번째 어깨가 나온 후 마지막인 세 번째 방향을 틀지 못하면 태아는 생명도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세 번째 전환〉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또한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전환〉은 2008년 12월 대학로 게릴라소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11일간 11회라는 춤 공연 사상 유래 없는 장기공연에 대한 도전을 감행하였다. 이는 춤공연 전문단체로서 그 실질적 공연수행의 역량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그간 춤 공연이 가져왔던 일회성과 소비적 공연형태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5년에 걸친 트러스트의 연작 “춤으로 보는 십계(해당화, 올리브나무, 데칼로그)”에서 가져왔던 독창적인 연출과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총체예술로서의 춤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2008년 〈세 번째 전환〉에 이르러 관객과 평단의 잇따른 호평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1995년 창단된 트러스트무용단은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우리들의 이야기' 라는 슬로건 아래 창작과 공연, 교육과 나눔 그리고 국제교류 등의 사업들을 통하여 춤과 삶의 공동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창작 정신과 공연 활동

우리 식의 창작품으로 만나다

서양과 다른 우리 옛 연희에서 보이는 다양한 연출과 창작방법론의 연구 그리고 시대와 지역을 넘어선 다양한 몸짓의 수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러스트만의 특별한 창작정신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품은 '오래된 새로움' 으로 국내외의 관객과 만나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한 춤의 생활화

모두에게 열린 춤 강좌를 통한 춤의 생활화를 열어간다

일반인과 전문춤꾼의 춤 교육은 물론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강습,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등 춤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한 소통과 치유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통한 소통과 치유

트러스트무용단은 그간 예술로부터 소외되었던 많은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그들과 춤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교육과 공연활동을 열어가는 소통과 치유의 몸이 되고자 합니다.

춤은 몸을 움직여 나를 보여줍니다. 춤은 마음을 움직여 당신과 만나게 합니다. 춤은 심장을 움직여 사랑하게 합니다. 춤은 성찰이자 소통이고, 춤은 나눔이자 치유이며, 몸짓으로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트러스트의 창작과 공연활동에 함께할 트러스트무용단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2010년 2010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국내 우수작 <세 번째 전환>,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서울국제즉흥춤공연 | 부산국제연극제 <세 번째 전환> | 창무국제무용페스티벌 <자메류 기억의 오류>, 의정부예술의전당 | 젊고푸른춤꾼한마당 |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연 <트러스트무용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춤나들이> | 청각 장애우를 위한 즉흥춤 워크샵 "움직임의 빛" 2009년 아르코예술극장 공동기획공연 <테칼로그-살인하지말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강릉문화예술관 기획초청공연 <테칼로그-살인하지말라>, 강릉문화예술관 대공연장 | 2009 부산국제연극제 초청공연 <테칼로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제9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즉흥공연,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어린이를 위한 즉흥춤공연 <콩나무놀이터>, 트러스트 스튜디오 2008년 트러스트 소극장춤극1, <Third Turn>, 게릴라극장 "PAF 올해의 춤작가상 수상" | 2008 고양호수예술축제, <스플래쉬>, 고양호수공원 한울광장 | 2008 주안미디어문화축전 <스플래쉬>, 미추홀로 | 2008 과천한마당축제 <스플래쉬>, 과천 분수마당 | 어린이를 위한 즉흥춤공연 <콩나무놀이터>, 트러스트 스튜디오 | 2008 트러스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춤나들이 공연, 전남 곡성, 경남 거제 | 2008 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 초청공연 <거리, 고리, 꼬리>, 유달예술촌 본무대 | 제8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즉흥공연, 한예중 무용원 스튜디오 씨어터 | 2008부산국제연극제 초청공연 <올리브나무>,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2008안산국제거리극축제 프린지공연 <스플래쉬>, 안산 광덕로, "국제프린지경쟁부문 1등 수상" | 트러스트 우수레퍼토리 앵콜공연 <올리브나무>, 서강대 메리홀 | 트러스트 작은무대 4 <Improvisation with Ted Stoffer>, 트러스트 스튜디오 | 네덜란드 초청 공연 및 워크샵 "Trust MELT Magpie", BIMHIUS, OT301/암스테르담 2007년 트러스트 정기공연 연작 십계 완결편 <올리브나무>, 서강대 메리홀 | 시작장애이동을 위한 무용교육, 움직임의 빛, 트러스트 스튜디오 | 한터 수교 50주년 기념 초청공연 <숫나기>, 오페라하우스, 터키 앙카라 | 아시안 아트마트 2007 쇼케이스 참가 <숫나기>, 싱가포르 Esplanade Theatre Studio | 제7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네덜란드 맥파이 뮤직댄스컴퍼니와의 합동 즉흥공연,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2007 트러스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춤나들이 공연, 전남 곡성, 충남 아산, 경남 거제 | 네덜란드 맥파이 댄스컴퍼니와의 합동 즉흥춤 공연, OVERTOOM301/암스테르담 |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지원대상 선정 2006년 나눔연극제 초청공연 <해당화>, 서울아트마켓 선정 개막공연 쇼케이스 참가 | 하나되는 세상(장애인문화진흥개발원) 공연 참가 <공간> | 시베리아 야쿠치아 초청순회공연 <유네스코 선정 어찌호추제 참가 및 공로상 수상> | 트러스트무용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연작 십계 두 번째 <해당화>, 안무 김형희 2005년 우리춤 빛깔 찾기 공연 <랜드스케이프>, 안무 김윤규 | 티벳 춤 교류 및 공연 <한국문예진흥원 지원> 2004년 2004년 무용비평가 선정 올해의 최고무용가상 수상(무용평론가 협회) | 제1회 올해의 예술상 수상 축하공연 <숫나기>, 한국문예진흥원 | 제7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 <숫나기>, 안무 김윤규 2003년 트러스트 연작 십계 첫 번째 <테칼로그1>, 안무 김형희.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2002년 기획공연 <빛과소금사이>, 아롱구지소극장 | 몽골초청 워크샵, 울란바토르 아라베스크무용정보센터 2001년 독일초청공연 한국, 독일, 브라질 공동안무(중앙에서의 만남) | 상해동방청춘기무단 초청 객원안무 및 워크샵 2000년 제1회 몽골국제현대무용제 초청공연 | 일본 초청공연(伊豫三島市, 松山市) | <고향의 봄> 트러스트 공연, 서울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문예진흥원후원 1999년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회공연, 포항, 포항, 울산, 광주, 부산 | 제10회 사이타마 국제 창작무용콩쿠르 참가(일본) 우수상 수상 1998년 1998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트러스트 순회공연, 포항, 울산, 구미 | 1998 트러스트 정기공연, 울산, 부산 | 제6회 바블레 국제 안무대회 한국예선 참가, 서울문예회관 1997년 공간지역 순회공연, 포항, 울산, 구미 | 유라시아 초청 순회공연,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 1997 트러스트 정기공연, 경성대 콘서트 홀 1996년 1996 트러스트 정기공연, 부산 문화회관 대강당 | 창무회 초청공연 "오늘의 춤꾼, 내일의 춤꾼", 서울 포스트극장 1995년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창단공연, 경성대 콘서트홀, 대구문화예술회관 | "제5회 대구무용제" 참가 <라이미아한>, 안무 김형희, 연기상 수상(임현미), 트러스트무용단 창단